

# ‘역대급 재정난’ 광주시 안일행정으로 세금 수천만원 날릴판

### 시 소방본부 합동청사 건립 전남도 땅 매입 계약금 117억 분납 계약 올 예산반영 안해 42억여원 미납...추경 반영편 이자 5800만원 ‘헛돈’

역대급 재정난으로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광주시가 안이한 행정으로 현재 수천만원을 날리게 됐다. 광주시가 2024년 본예산에 소방안전본부·서부소방서 합동청사 부지 매입 비용을 누락하는 바람에 전남도에 이자 수천만원을 추가로 물어주게 된 것이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서구 화정근린공원 인근에 2028년 준공 목표로 합동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 총 655억 1300여만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본청과 1개의 별관동을 지을 예정이다. 시는 합동청사 신설부지 8359㎡ 가운데 전남도 소유인 4183㎡를 사들이기 위해 2022년 10월 전남도와 공유재산 매매 계약을 맺고 3년에 걸쳐 토지대금 117억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공유재산법에 따라 대금을 3년 동안 분납하는 대신 3.40%의 이자를 내는 조건이었다.

시는 2022년에 10억원, 2023년에 66억원을 분납했으며 오는 31일 42억 5928만원(원금 41억 1900만원, 이자 1억 4000만원)의 잔금을 치르면 매입이 완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는 2024년 본예산에 합동청사 부지 토지매입비로 ‘0원’을 편성해 잔금을 낼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결국 사업주무처인 광주소방본부는 지난 16일 전남도에게 납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보냈다. 오는 5월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납기일을 미뤄달라는 게 골자다. 전남도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부지 매입비 납기기한은 일단 6월 30일까지 늦춰졌다. 문제는 납기일 연장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최저

7%~최고 10%에 달하는 연체료는 면했으나, 납기일이 5개월여 늦어진 데 따른 추가 이자 5835여만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어쨌든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 시는 자의적인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부지매입비 예산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안 편성 당시 광주소방본부로부터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63억원의 예산 편성 요청을 받았으나, 정작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설계용역비 명목으로 18억 2874만원만 반영했다. 광주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토지매입비는 100%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국세가 줄고 부동산 재산세·취득세 등이 덜 걷히면서 시청 재정이 많이 어렵다 보니 예산에서 누락했다”며 “부족한 금액

은 추경 때 추가 반영 요청하면 될 것이라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광주시가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다보니 보니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부지 매입조차 다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설계용역비 예산부터 우선 편성했다는 점에서 앞뒤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남도와 잘 협의해서 연체료 없이, 이자 정도만 물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추경 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시 남구 사동에 있는 국가등록문화재 제694호인 활쏘는 정자 ‘광주 관덕정’의 전경.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 관덕정, 광주시 상대 궁도장 사용권소송 항소심도 패소

### “사용 제한, 권리남용 해당 안돼”

광주 궁도인 단체인 ‘관덕정’이 궁도장 사용권을 확인하는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이흥권)는 광주 관덕정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궁도장 사용권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관덕정은 궁도기술 연마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광주시 남구 사동의 궁도장(본건물·부속 건물·화장실 등 총 125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관덕정은 1984년 광주시와 이 부동산을 ‘궁도장

으로 영구히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시에 소유권을 이전해줬다. 광주시 체육회는 시로부터 궁도장을 위탁받았고 광주시궁도협회와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궁도장 관리를 맡겼다. 하지만 지난 2021년 3월 광주시궁도협회가 ‘협회가 부동산 관리·운영 주체’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붙이고 4월께 관덕정에게 ‘부동산 사용 및 운영을 중단하라’는 취지를 통지했다. 소송에 나선 관덕정은 “38년간 관덕정이 궁도장으로 무상 사용·수익해왔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사용·수익을 박탈하는 것은 권리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증여당시 조건은 궁도장으로 용도가 특정이 됐을 뿐이지 관덕정에게 영구히 사용·수익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관덕정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광주시가 관덕정에게 사용·수익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권리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 판단에 대해 관덕정 측은 “광주궁도협회의 독단적 결정에 따른 기존 갈등에 재판이 진행된 것 뿐”이라면서 “이미 광주시 체육회가 궁도장을 관리·운영하기로 해 갈등은 봉합됐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고속도로 횡단 여친 사망, 제지 못한 남친 무죄

### “안전한 장소 이동 의무는 없어”

고속도로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내린 여자 친구가 차에 치여 숨졌다면 남자 친구인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법원은 당시 상황을 감안해 남자친구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17일 밤 10시부터 광주 서구의 한 주점에서 여자 친구 B(39)씨를 만났다. 술을 마시지 않은 A씨는 18일 새벽 0시께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됐다. A씨가 B씨의 전 남자친구에게 보낸 문자가 문제였다. 승강이 끝에 A씨는 B씨 전 남자친구가 사는 파주에 가서 사과하겠다고 새벽 0시 50분께 서울 대전 방향 호남고속도로에 진입했다. 하지만 술취한 B씨는 경찰에 납치당했다며 신고를 하고 차량 시동 버튼을 끄는 행동을 반복

했다. A씨는 건디다못해 2분만에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86km(비야버스정류장 인근) 부근의 갓길에 차를 세웠다. 그는 차에서 내린 B씨가 가드레일을 건너 도로 쪽으로 이동하려하자 제지하기도 했다. A씨의 제지에도 B씨는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A씨가 B씨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B씨(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22%)가 순간적으로 화가나 A씨와 같이 있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B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다른 이동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아내 보험금 노리고 장인·장모 명의 위조 40대 징역형

### 1억 3000만원 타낸 혐의도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장인·장모의 명의를 위조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공동상속인인 장인과 장모로부터 보험금 청구 수령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보험금 대표 수익자 지정서’를 위조해 보험회사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험사로부터 걸려온 확인 전화를 받게해 장모처럼 행세하게 하는 수법으로 아내의 사망보험금 1억 3000여 만원을 타낸 혐의

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14일 숨진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혼자 수령하기 위해 공동상속인인 장인과 장모의 도장 등을 미리 준비해 보험금 대표 수익자 변경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위조한 보험금 대표 수익자 지정서에 공동상속인인 장인과 장모가 합의해 대표수익자를 자신으로 지정했고, 추후 다른 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A씨가 장인·장모와 연대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 상담문의: 062-449-4446